

# 실학 링크 Links

상설전시 자율활동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실학박물관에서는  
조선후기 실학을 배울 수 있어요!  
실학자를 만나 오늘날 우리의  
실학을 찾아볼까요?

혼개통헌의는 실학박물관 대표 소장품이자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이슬람식  
천문기구(아스트로라브)예요.  
실학자 유금이 1787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 불편한 제도를 바꾸자!

도움말: 1 전시실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제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땅을 가진 만큼 쌀로 통일하여 세금을 내게 한 대동법을 주장한 실학자는 누구일까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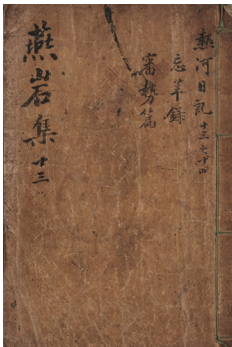
## 실학 링크 ①

옛날 실학자들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나요? 그걸 어떻게 바꾸면 더 좋아질까요?

<p><b>불편한 점</b></p>	<p><b>새롭게 바꿀 점</b></p>
---------------------	------------------------

# 열린 자세로 배우고 실천하자!

도움말: 2 전시실



박지원은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한 북학파 실학자예요. 박지원이 1780년 건륭제의 칠순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실제 모습과 문물제도를 소개한 여행 기록은 무엇인가요?

( )

## 실학 링크 ②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장사하고, 다양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훨씬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물건이 널리 이동할 수 있는 '수레'와 실용적인 '벽돌' 사용을 주장했어요. (★1전시실 입구 전시)

<p><b>오늘날에는 교통과 건축 기술이 발전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b></p>
--



# 넓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자!

도움말: 2점시실



정약용은 배다리 건설, 수원화성 축조 등 관직 생활을 하며 많은 활약을 했으나, 정조가 죽은 뒤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제자를 키우고,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실학을 정리했어요. 정약용이 죽은 뒤 100년이 되던 해 그가 쓴 글과 시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정약용의 집에서 이름을 따온 문집은 무엇인가요?

( )

## 실학 링크 ③

정약용은 백성을 위해 수령이 지방을 다스릴 때 지켜야 할 지침을 다룬 <목민심서>,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등 국가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경세유표>, 범죄와 형법을 연구한 <흠흠신서>, 전염병 마진(홍역) 치료법을 다룬 <마과회통> 등 조선 사회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어요.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정약용이 오늘날 살았다면, 무엇을 연구하고 책을 썼을까요?



정약용 초상화

# 경험을 통해 사실을 알아보자!

도움말: 2점시실



‘실사구시’는 경험과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 태도를 말해요. 실사구시를 잘 실천한 실학자 김정희는 꼼꼼하게 연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덕분에, 아무도 정체를 몰랐던 북한산 비석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비석에 적힌 글씨를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연구한 내용이 담긴 책은 무엇인가요?

( )

## 실학 링크 ④

현대 사회에는 인터넷과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꾸며낸 사진과 영상물(딥페이크)처럼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가요?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찾는 ‘실사구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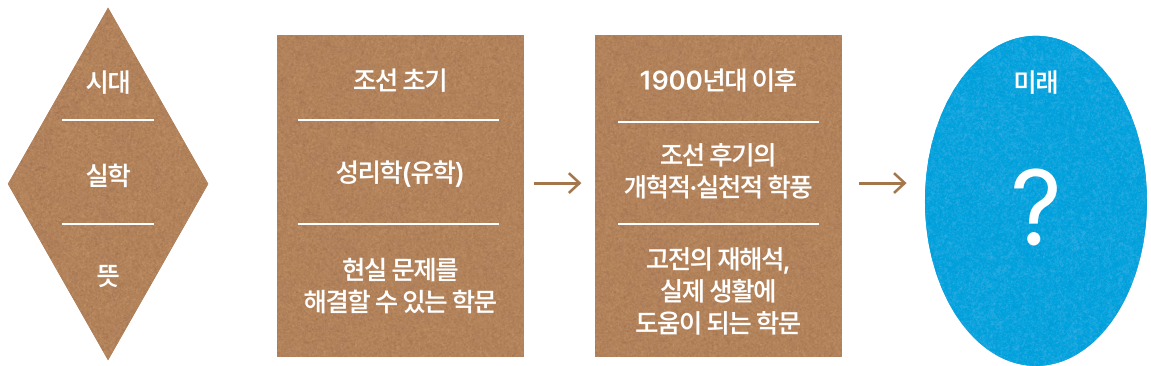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실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예요!

실학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쓰이지 않고 걸만 그럴듯한 공부와 반대되는 거예요. 실학자들은 실제 생활에 쓸모 있는 지식을 제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 실학은 하나일까요?

‘실학’은 시대에 따라 성격이 달라졌어요. 조선 초기에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불교와 반대되는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실학’이라 하면 주로 조선 후기 실학을 가리켜요. 이는 1900년대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학문의 흐름을 연구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미래에는 무엇을 실학이라고 부를까요?




## 여러분에게 실학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에 이를 실천하고 있는 실학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실학은 ( )이다.

오늘날 실학자는 (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여러분의 실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출판: / / / /